

[전체공지]

※ 방문이나 관심이 필요한 환자나 쉬는 교우분이 계시면 언제나 주임신부님에게 알려주시고 면담이 필요한 경우도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잭슨빌]

- [사목회의] 2월 9일 주일미사와 친교 후에 있습니다.
- [성시간 및 금요일 평일미사] 2월 7일 8시에 있습니다. 성시간이 먼저있고 미사가 그 다음입니다.
- [전례자 봉사] 성당 게시판 2020 전례 봉사자 날짜와 명단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김 스테파니아 자매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세부보고서가 필요하신 분은 재정부 이카타리나 자매님께 문의 및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9년 납입 확인 및 2020년 신년약정서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고리 기도] 2020년 2월 기도 지향으로 새로 부임해서 오신 김진모 펠릭스 신부님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정착하시도록 공동체 모두 함께 기도드립니다.

[게인즈빌]

- 2월 14일(금요일)에 평일미사가 있습니다.
- 2020년도 교무금 약정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 2019년도 세금보고 자료 필요하신 분은 프란체스카 자매님께 문의 바랍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공동체	주일봉헌금	교 무 금	건축헌금	기타	총 계
게인즈빌	\$189(33명)	\$130	-	-	\$319
잭슨빌	\$391(35명)	\$1,300	-	-	\$1,691

**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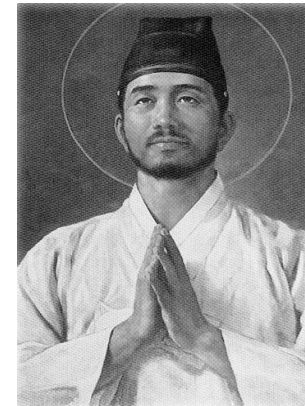
St.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

주임신부 김진모 펠릭스 (904) 909-5080

성당 (904) 573-1833

잭슨빌 성당 St.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 8051 Rampart Rd. Jacksonville, FL 32244

게인즈빌공동체 St. Patrick Parish, 550 NE 16th Ave. Gainesville, FL 32601



聖 최경환(崔京煥) 프란치스코(1805-1839)

잭슨빌 한인 성당		게인즈빌 한인 가톨릭 공동체	
주일 미사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특전 미사	토요일 오후 7시
평일 미사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첫째 금요일 성체현시 및 미사	평일 미사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7시30분 성가대 연습실
성령 기도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성령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성 프란치스코 기도회	매주(목) 오전 11시	레지오	-
성시간	첫째 주 금요일 미사 후	주일학교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주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사목회의	둘째 주 주일미사 후	사목회의	둘째 주 주일미사 후
사목회	총무 이토마스 (904) 416-7437 부총무 김스테파니아 (904) 613-9245	사목회장	천창준 레오 (352) 727-0452

www.stfccm.org

https://www.facebook.com/St.FrancisChoe

오늘의 묵상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40 일이 되는 날입니다. 교회는 이날을 맞이하여 봉헌의 삶을 사는 수도자들을 기억합니다. 수도자들은 복음적 권고를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온전히 바치며 가난, 정결, 순명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가난은 '나의 것'을 봉헌하여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며, 정결은 '나의 사람'을 봉헌하여 모든 이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고, 순명은 '나의 뜻'을 봉헌함으로써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가난, 정결, 순명은 비단 수도자만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모두가 자신의 처지 안에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봉헌하기에 앞서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아드님을 봉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당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천상에서 영원무궁토록 찬미를 받아 마땅하신 당신의 아드님을 지상으로 보내시어, 여느 평범한 이들과 다를 것이 없는 이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인류는 하느님의 아드님을 감히 우리의 형제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바치는 봉헌의 의미를 새길 수 있습니다.

봉헌은 하느님께 어떤 대가를 바라고 바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께 무언가를 바치기에 앞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봉헌입니다. 그 감사함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봉헌은 시장 경제의 논리에 갇힌 투자나 거래와 다를 없을 것입니다.

(한재호 루카 신부)

< 8. 찬미하여라 >

Bless the Lord, my soul, and bless God's ho - ly name.
찬 미 하 여 라 오 나 의 영 혼 아 -

Bless the Lord, my soul, who leads me in - to life.
찬 미 하 여 라 거 룩 한 주 이 름

주님 봉헌 축일

[제 1 독서] 말라키 예언서 3.1-4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화답송] 시편 24(23).7.8.9.10 (㉠10 L C)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제 2 독서] 히브리서 2.14-18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알렐루야.

[복음] 루카 2.22-40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전례 봉사자>

공동체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이 번 주	게인즈빌 (2/1)	고승희 엘리사벳	백창호 그레고리오	이수미 로사	-
	잭슨빌 (2/2)	서정원 헬레나	최차숙 마리아	이 글라라	이규순 카타리나 프랭크 형제님
다 음 주	게인즈빌 (2/8)	이호석 레오폴드	천창준 레오	천하일 미카엘	-
	잭슨빌 (2/9)	이교순 카타리나	백경윤 아네스	서정원 헬레나	최 크리스티나 김 스테파니아

<미 사 성 가>

공동체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건
게인즈빌	26	96	406	342
잭슨빌	49	212	152	31